

# 나눔과 융합 통해 세계 사회에 공헌

### 전북대, 아프리카 학생에 선진 축산기술 전파... 우간다·가나·케냐 등 7개국 20명 학생 5주 교육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2019 아프리카 대학생 초청 연수사업'을 통해 우간다와 가나, 케냐 등 아프리카 7개국 20명의 축산수의학 전공 학부생을 초청 한국의 고급 축산 기술을 교육한다고 밝혔다. 8일 진수당에서 아프리카 학생들에 대한 초청식을 가졌다.



전북대학교가 8일 진수당에서 아프리카 학생들에 대한 초청식을 가졌다.

전북대의 우수 아프리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올해 세 번째다. 이번에 들어온 학생들은 5주간 집중적으로 동물생명공학, 동물생리학 등의 이론 수업과 현장실습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축산기술을 배운다.

전북대는 2016년에 국내 대학 최초로 우간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간다 산학연계형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전북대부설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센터장 김중기)는 우간다 명문 국립대학인 마케레레대학의 축산수의대 졸업생 13명을 초청해 농축산식품융합학과와 연계하여 2년 동안 학생들의 석사과정을 운영했다.

이들은 올해 2월, 석사학위 취득 후

본국으로 돌아갔다. 학생들은 우간다 한국형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현지 축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형 협동조합을 추진 중인 졸업생 데이비드 볼 등은 한-우간다 국제협력사업 분야에서 전북대에서 전수 받은 '예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을 현지 농축산용 미생물 발효 시설 건립 시범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김동원 총장은 "전북대가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한국의 선진 축산기술 전수를 통해 아프리카 등 개발

도상국의 자활과 자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학문과 산업의 효과적인 나눔과 융합을 통해 세계 사회에 공헌하는 기초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예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이란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단장 이학교)이 산학협력 연구를 통해 두지포크와 함께 개발한 유용 미생물 활용 기술로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 가축의 장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가축질병에 대

한 면역력을 높이고 분뇨처리, 축산냄새 문제 등 축산 현안을 해결하는 고급 축산기술이다.

한편, 전북대는 국내 처음으로 예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을 적용한 프로바이오틱스 돈육 '두지포크'를 개발하고 전주 객리단길에서 외식 브랜드 '온리한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의 일부를 지역 농축산브랜드 육성, 청년 취·창업 지원, 전북대 장학금 기탁 등 지역사회와 함께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 전주교육지원청·효천지구 공동주택개발시행사 협약

전주 효천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통학차량이 지원, 통학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4인승 1대, 45인승 2대가 입주 중인 우미린 아파트를 경유해 등하교시 2회씩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교육지원청과 효천지구 공동주택개발시행사가 지난해 12월 4일 효천지구 입주 초·중·고등학교를 위한 통학차량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효천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초·중·고교 개교(가칭 효천초

2020년 3월 개교예정) 시기가 불일치 하면서 개교 전까지 전주용의초등학교 분산 배치함에 따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입주 세대가 늘어나면서 200~230여 명의 학생들이 통학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약을 통해 전주교육지원청은 통학차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 및 관리하며, 효천지구 공동주택 개발시행사는 통학차량운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전라북도교육청 운영직 연합회가 지난 6일 임실군민체육관에서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운영직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 "행복한 교육공동체 만들어요"

### 전북교육청, 운영직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전북도교육청 산하 운영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라북도교육청 운영직 연합회' (회장 차재영, 금마초등학교)는 지난 6일 임실군민체육관에서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운영직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운영직 연합회에서는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정년퇴임하는 선배들과의 석별의 정도 나눴다.

특히, 한마음 체육대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임실교육청 정나영 교육장 외 내빈들이 참석했다. 차재영 연합회장(금마초등학교)

은 "체육대회를 통해 운영직별 주무관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회원 간 단합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앞으로 변함없이 사랑의 희망 장학금 전달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 운영직 연합회는 지난 2014년부터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장학사업을 시작해 현재 지역별 연합회에서 후원을 받아 작년까지 어려운 학생 6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고 올해는 15명을 선발해 상·하반기로 나눠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문화교류로 정체성 확립과 이해의 폭 넓힌다

### 전북교육청, 정책간담회 추진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7일 저녁 전주관광호텔에서 캐나다 입양 학생 및 양부모 50명과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현실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적 역량을 기르는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캐나다한인입양회는 지난 1일 입양 학생의 모국인 한국을 찾았으며, 오는 13일까지 한국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7일과 8일 이틀간 전주를 방문해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

가는 문화다양성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와 문화교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외 입양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도록 돕고 양부모에게는 한국 문화와 친숙해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문화교류와 소통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해외 입양 학생들이 한국 방문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교육장 임용예정자 발표

전북도교육청이 김수봉 동신초 교장 등 3명이 2019년 9월 1일자로 교육장 임용 예정자다.

8일 전북도교육청은 김수봉 동신초등학교 교장, 박일관 나포중학교 교장, 정대주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장을 교육장 임용예정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수봉 동신초등학교 교장은 올해 만 58세로 전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덕천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박일관 나포중학교 교장은 올해 만 56세로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봉서중학교 교장을 지냈다.

/장은성 기자



김수봉

박일관

정대주

정대주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장은 올해 만 60세로 원광대학교를 졸업하고 진안교육지원청 장학관과 정일제일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9월 1일자 교육장 임용 예정자의 임지는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인사사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장은성 기자

## 고창읍내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 공청회 개최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황근)이 고창읍내 중학교(교장중, 교장여중)를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학

교선택권보장, 학교 구성 다양성 확보를 통한 학교생활 만족도높이기 위해서다. 공청회는 오는 18일 오후 3시 고창고등학교 민족교육역사관 2층에

서 읍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전북정책연구소의 남녀공학 전환 정책연구 결과 발표,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찬성·반대 의견 발표, 중학교 남녀공학 토론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고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설문 조사를 실시해 남녀공학 전환 대상학교로 선정되면, 학부모 설명회, 통학구역 검토, 예산 확보, 시설개선 등의 절차를 거쳐 남녀공학 전환이 마무리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